

序

壬戌譜

譜란 氏族의 世系를 序錄하여 尊祖睦族하는 根源을 세우고 있는바
嚴正한 考證과 泛博한 採集을 資하지 아니하면 昭穆이 明確하지 못하
여 叙秩이 紋亂하게 됨으로 蘇洵의 말한바 孝悌之心이 油然而生할수
없는 것이다 이러므로 孔子께서도 杞宋의 無徵을 탄식하신바있다 우
리나라 族譜制度는 대개 朝鮮王朝初期부터 各系門中別로 手寫本이
作成되어 家藏戶傳되어 오다가 肅宗 때 (檀紀四〇〇八—四〇五三
西紀一六七五—一七二〇)에 이르러 刊譜
가盛行하게 되었으나 窮鄉士家는 物力關係로 英祖時代 (檀紀四〇五八—四一〇九
西紀一七二五—一七七六)
에서야 거의 普徧化되고 있었다 우리 淸金은 國史와 家乘을 考察컨데
新羅 閔智王 (檀紀二二九八
西紀六五)부터 發祥하여 王系와 支派가 繁衍延綿하기를 千
有餘年の 歷史를 찬란하게 이어오던중 高麗 高宗 (檀紀三五二三—三五九九
西紀一一九〇—一二六六)代에
諱之岱의 封鰲山君하고 謚英憲하니 鰲山은 淸道古號이므로 英憲公
을始祖로모신 金氏는 모두 淸道를 本貫으로 삼고있어 그 後로도 奕
世簪纓이 蟬聯繼承하면서 各派가 分支되었던것이다 維我尚州派는 檢
校公諱希輔를 中始祖로하고 恭讓王朝에 至하여 諱九鼎이 黃澗縣監

으로 高麗運革을 當하여 棄官하시고 板谷에 隱居하시 罔僕之節을 守하심으로부터 지금까지 世居하고 있다 英憲公의 契丹征伐에 揭盾하신 忠孝雙修는 綿綿히 千秋의 青氈家訓이 되고 있어 漢陽朝의 黃澗公의 罔僕大節과 義士公의 龍蛇倡義와 叅議公의 文章經術과 修義公의 隱德不仕와 竹溪公의 孝廉學行과 龜湖公의 起旅赴援과 承旨公의 出天誠孝와 雙修道村 四勿 四聲 醒菴 德溪의 累世清德이 忠孝善行으로 一貫되어 비록 顯揚한官職은 크게 나타나 있지 않으나 百世家風은 純潔히 粹飾하였다 國內外를 通하여 廣在한 英憲公子孫이라면 大同團結하여 百世合譜하는 것이 當然之事이오나 우리 尙州派는 系代未詳으로 먼저 甲子譜刊行時에 清道宗人과 合譜를 아니하였던 것이다 그後 庚子年에 修譜한바 있으나 計代上不合理한點이 있었다 今次刊譜에도 系代問題에 對하여 長時日에 걸쳐 宗内外文獻을 詳考하였으나 이를 確信할수 있는 文蹟을 發見하지 못하였다 이는 後孫으로서 痛恨之事이오나 道理없이 後日의 考訂을 企待하고 爲先甲子譜에 依據 修譜하기로 諸宗과 合議하여 刊行하였다 비록 各派와 大同譜를 하지 못하였으나

同一始祖를 모신 百代之親에는 秋毫의 變함이 없음을 거듭다짐하
고 尊祖敬族의 敦睦精神을 한층더 發揮하여 英憲始祖로 부터 이어받
은 忠孝家訓에 대하여 矜持와 努力을 倍加해서 比 物物質爲主의 刻
薄한 世變속에 處하고있더라도 無忝爾祖란 古訓을 잊지말고 相扶相
愛하는데 힘쓰기를 念願해 마지아니하는바이다 끝으로 이번 譜事에
있어 誠勤한 熱意로 始終周旋하신 圭浩族叔에게 感謝를 드리면서
약간의 所懷를 적어 序文에 代하는바이다

檀紀四三一五年壬戌八月 日

後孫 相潤 삼가 씀

甲子譜序

程夫子有言曰管攝天下人心야하收宗族厚風俗이須是明譜系고라하蘇明允이曰
觀吾譜者一孝悌之心이油然而生니라하若是乎譜系之所係一甚重而推本其所
自生야하上達於有姓之始고하歷舒其分派야하傍推於無服之後者一不有歷世記
載之詳審면이其何以徵信며이其何以觀感也哉요리粵在高麗高宗時애有諱之岱
尼하清道人也라官平章諡英憲이是我鼻祖也라繼而世詩禮一襲簪纓一澤民
經國之賢이直相望焉니하勝國以前은尚矣라勿論요이逮我朝야하黃澗公之失
志罔僕과叅議公之文章經術과修義公之隱德不仕와竹溪公之孝廉學行과
執義公之倡義殉節과龜湖公之起義赴援과承旨公之出天誠孝一此其章章
著明者而儒林宗匠而有雙修道村四勿公之禮享이千秋忠孝承家而有四聲
公之望傾一世와醒菴公之春秋大義와德溪公之孝感天人이此皆一英憲公
之積德累仁厚爲之基而有以蔭其裔于無窮也라凡爲子孫者一敢不力文學
敦孝悌야하思所以承述之也오리吾金之散在東國者一皆祖一英憲公則爲一英
憲子孫者一雖百世도라舉皆合譜而獨吾派一不幸야하龍已兵燹之後에家乘失
守야하文獻이無徵야하纔得以繼序而昭穆之者一始自一檢校公以下也라以

英憲公_로爲鼻祖而須不知爲幾世于 檢校公故_로道材四勿二公_이攷正家

藏時_에註着遠孫二字於 檢校公之下而至今尚未考正_{나하}遺昆百世之恨_이

當復何如哉_{오리}往歲丙戌_에清道宗人_이不無謬錯於校正刊譜_{야하}至有破譜之

舉_{나하}與其苟且同譜_{야하}致有未安於重大之地_론無寧隨派各譜_{야하}不失其慎重

之義耶_아終則不得不隨派各譜而無論譜之合與不合_{고하}自我 英憲公視之

則俱是一人身也_{나하}克推一身之意於百世之下而無或至於途人相視_{고하}榮辱

之與同_{며하}休戚之與同_{야하}孝友敦睦之互相責勉_{야하}無或墜先業則吾門之昌大

可執契而卜之矣_{나하}不亦偉且盛歟_아刊譜既訖竣事_에諸公_이要余一言以

爲之識_{늘으}辭不獲遂舒其顛末如右_라

崇禎紀元後四甲子季夏上澣_에後孫縣監魯鳳_은謹識_{하노}

英憲公遺稿

清道金氏本源世系

一世 二世 三世 四世 五世 六世 七世

始祖金闕智

位號大輔追尊世祖

勢漢

屠西干

按尼師今居西干次

雄摩立干皆羅時王

者之號

阿道

波干

首留

角干

郁甫

角干

仇道

一吉淦追封葛文王

伐休王時爲將軍左

軍主

妃述禮夫人朴氏祇摩

王子伊非女有三男

長味鄒王次大西知

次末仇

味鄒王

系沾解王昔氏而立

金氏爲王始此漢後

帝甲辰薨在位二十

四年陵在皇南里號

竹陵或云竹長陵功

德事業爲東方有國

之最故 朝鮮高宗

二十四年丁亥因后

孫萬澤等疏特命禮

享于崇惠殿

妃先明夫人昔氏

大西知

末仇

伊伐淦儒禮尼師今

八年辛亥晉惠帝元

年伊伐淦忠正有智

王常訪問政要後爲

角干

妃休禮夫人金氏生奈

勿王

妃摩貞夫人昔氏脫解
王子康造女
三國史云新羅第四
王漢明帝永平三年
秋八月夜聞金城西
始林間有鷄鳴聲遲
明遣瓠公視之有小
金櫃掛在樹間白雞
鳴於上公還告王使
人收櫃開之有小男
兒其中姿貌奇偉王
喜曰此豈非天助我
以令允乎乃收養之
及長聰明多智略因
名闕智以其出於金
櫃故賜姓金氏有鷄
異故改始林爲雞林
因爲國號以太子康
造之女妻之至七世
孫味鄒王代沾解王
立事載東京誌